고용노동부

보도자료

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일시	2021. 9. 2.(목) 조간 *인터넷 2021. 9. 1.(수) 13:30 이후		/ 총 11쪽
담당부서	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	과 장 엄대섭 사무관 윤현욱	044-202-7347 044-202-7351

< 본 자료는 http://www.moel.go.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「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」 고용보험위원회 의결

❖ (지출효율화) 한시사업 종료 등 **사업 구조조정,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 '22년 약 2.6조원 절감**

❖ (수입 확충) **일반회계 전입금 1.3조원,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 0.2%p**(노사 각 0.1%p) **인상** 등을 통해 '22년 약 **3조원의 수입 확보**

❖ (개선 효과) **'22년부터 재정수지 개선, '25년 적립금 8.5조원 전망**

□ **고용노동부**(장관 안경덕)는 **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**에서 **'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'을 의결**했다.

○ 고용노동부는 **코로나19 위기 극복** 과정에서 고용유지, 취약계층 취업지원, 구직급여 등의 **지출이 대폭 확대**되고, **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**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**재정이 매우 악화**되었으며,

* '21년말 적립금이 '20년 대비 크게 감소(△2조원)하여 4.6조원 수준 예상, 공자기금 예수금('20~'21, 7.9조원) 제외 시 △3.2조원

○ **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**을 위해 지난 4월부터 **노사 및 전문가**가 참여하는 **「고용보험제도개선TF」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.**

□ 이번에 의결된 재정건전화방안에서는

(1) 지출조정

○ 먼저 **지출효율화 측면**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**6개 한시사업을 조정하여 '22년 약 1조원을 절감**하고,

* **한시사업 종료·통폐합** ▲ 청년추가고용장려금,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, 고용유지자금융자, 특별고용촉진장려금, 노동시간단축지원, 주근로시간단축 6개 사업 종료

→ (효과) `21년 대비 `22년 9,833억원 지출 감소

-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**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규모와 지원수준 등을 조정해 '22년 약 1.6조원을 감축**하기로 했다.

* **사업규모조정**(만명): **고용유지지원금**(78.1→16.4), **직업훈련생계비대부**(3.4→0.9)
지원수준조정: **청년내일채움공제**(기업자부담 설정: 30인이상 20~100%, 중견기업 제외), **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**(시차출퇴근제 폐지, 10만원/주→30만원/월), **워라밸일자리지원**(제한없음 → 기업별 30명) 등

→ (효과) '21년 대비 `22년 1조 5,551억원 지출 감소

- 또한, **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일반회계로 지속 이관할 예정이다.**

* 이관추진: ('22) K-Digital Credit 400억원 : 고보기금(내일배움카드 內) → 일반회계

↳ 완료: ('19) 7개사업 1,275억원, ('20) 2개사업 2,321억원, ('21)7개사업 2,115억원

○ 더불어,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급여 일부를 조정(50%~10%)하는 등 **반복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** 방안도 이미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.

* <구직급여 감액> 5년간 3회 수급자 10%, 4회 25%, 5회 40%, 6회 이상 50%
(법 시행 이후의 수급부터 횟수 산정, '20년 수급자 기준 연 752억원 지출 감소)
<대기기간 연장> 5년간 3회 수급자 2주, 4회 이상 수급자 4주(현재는 모두 1주)

○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도 **성과 기반으로 개편**하여 **미흡한 사업**에 대해서는 **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**한다.

* 고안·직능 계정사업 중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 다음연도 예산(10%) 감액

○ 코로나19 상황을 보아가며, **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**된 **실업인정 기준***을 **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, 허위·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**하고 **관련 기준**을 재정비한다.

* △실업인정 전 회차 비대면 가능, △워크넷 구직활동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인정 등

(2) 수입 확충

○ **일반회계 전입금 1.3조원 등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**하고, **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**(0.2%p '22.7.1~) 등을 통해 **'22년 약 3조원의 추가 수입**('23년 이후 1.8조원)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.

*** 일반회계 전입금: 1.3조원, 공자기금 예수금 1.3조원**
↳ 예수금: 코로나19 재확산 등 예기치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 폭증 등을 대비하여 단기 운영자금 확보

○ 이와 더불어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, 사회보험료 지원 등 **중소·영세 기업 지원사업을 확충**(일반회계)하고

*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(10인 미만): ('21) 8,103억원 → ('22) 10,466억원
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연장(30인 미만): (당초) 지원 종료 → ('22) 4,635억원

- 약 5천억원 규모의 **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**(신규) **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함으로써**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축소에 따라 **기업·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** 했다.

* 청년일자리창출지원: 5,428억원 ('22년 신규),
실업예방·고용안정: 노동이동지원 사업 103억원 ('22년 신규)

○ **특히, 보험료율 인상은 수준·시기 등을 두고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** 벌인 끝에

- **기금 재정상황,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기대** 등을 고려해 **실업급여 보험료율 0.2%p**(1.6%→1.8%, 근로자, 사업주 각 0.1p% 분담)를 **내년 7.1부터 인상**키로 했다.

* **근로자 1인 기준 월 2,886원**(연 34,632원)**을 노사가 각각 부담**(근로자 평균월급 288만원 기준)
* 사업주가 부담하는 **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계정 보험료**는 정부의 일반회계 역할 강화(전입금 확대+ 일반회계 사업 전환)를 통해 인상 요인 해소(**동결**)

- 이는 지난 '20.7월 **노사정 협약의 "노사정 공동부담 원칙"에 따라 정부는 상당한 재정을 투입**하고 **노사는 보험료율을 인상**하는 등 **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 노력의 실천**으로 볼 수 있다.

  * **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협약('20.7.28.)**: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확대와 지출 효율화 우선 추진,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 등 포함

□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통해 **미래 예측하지 못한 고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**했다고 밝혔다

○ 재정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**'22년부터 재정수지가 개선되고, '25년에 적립금이 약 8조 5천억원에** 이르는 등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

○ 각 계정(실업급여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) **적립배율이 1.0을** 넘는 시점('27년 예상)부터 **단계적으로 예수금 상환**도 **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**

  * 재정수지 (조원): ('22): △2.8 → +0.03, ('25): 0.6 → 2.5,
    적립금 (조원): ('22): 1 → 3.9 ('25): 0.4 → 8.5 ('30) 10.2 → 29.6

□ 한편, 고용노동부는 이번 **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**으로 **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**하고,

○ 앞으로도 **지속적인 지출효율화, 구직급여 상·하한액의 합리적 조정,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인정** 등 그간 **「고용보험 제도개선 TF」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·논의**할 예정이다.

□ **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**은 9.1, 서울청사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"이번 재정건전화 방안은 **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, 노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노사정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함께 극복**하기 위해 집중 논의한 결과"로 평가하면서 "앞으로도 고용보험기금이 **고용위기를 극복**하고 **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본래의 역할을 다하도록** 노력하겠다."라고 밝혔다.

*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 1.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과 그간의 고용정책
2. Q & A

【별첨】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

붙임 1 고용보험기금 재정상황과 그간의 고용정책

□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**경제·고용상황, 제도 변화의 영향**을 받으며, **경기변동에 따라 순환되는 구조를 보임**

□ 최근 **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**는 **코로나19 위기 대응**을 위해 **고용유지, 취약계층 취업 지원, 구직급여 지급 등 대폭적인 지출 확대와 관련됨**

○ **우선,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유지와 취약계층 고용지원에 총력**을 다함으로써 **고용충격을 최소화**하고 **실업급여 부담을 줄이는 노력**을 경주

- 이 과정에서 **1.8조원에 이르는 정부 일반회계 재원**을 보강

  * 고용유지지원금 (조원): ('18) 0.07 → ('19) 0.07 → ('20) 2.3
    고용창출장려금 (조원): ('18) 0.5 → ('19) 1.0 → ('20) 1.6

○ 이를 통해 '20년 **77.3만명(7.2만개 기업)의 고용유지와 27.9만명에 대한 신규취업을 지원**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**핵심적인 역할을 수행**

  * 청년(25~29세) 고용률(%): ('17) 68.7→ ('18) 70.2→ ('19) 70.4→ ('20) 67.6→ ('21.6) 68.4
    취업자수(천명): ('17) 2,292→ ('18) 2,408→ ('19) 2,475→ ('20) 2,420→ ('21.6) 2,492

○ 이 같은 노력에도 **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** [('19)144 → ('20)170만명] 실업급여 지출도 크게 증가

  * 구직급여 (조원): ('18) 6.5 → ('19) 8.1 → ('20) 11.9

□ 그간 정부는 **실업급여 보장성 강화('19.10월 시행)*** **등 1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**해 왔으며,

  *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**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**하기 위하여 **'15.9월 노사정 대타협 등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도입**

○ 이렇게 **강화된 실업급여 제도는** 코로나19라는 극심한 고용위기를 맞아 **수급자들의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에 큰 힘이 되었고**

* 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일수(일수): ('18) 123.3 → ('19) 128 → ('20) 150.9
1인 평균 구직급여 지급금액(만원): ('18) 611 → ('19) 714 → ('20) 887

○ 보장성 강화와 함께 **보험요율 인상(0.3%p) 등 재정보강 조치를 병행하여 재정균형**을 도모했으나,

- **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위기가 발생**함에 따라 **기금재정이 보강되기 전 막대한 지출 소요**가 발생함

□ 한편, **심각한 청년 실업**과 **저출산 문제**를 해결하기 위한 **에코세대 맞춤형 청년대책('18.3)과 모성보호 육아휴직의 지속적인 추진**도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압박함

* 모성보호육아지원 (조원): ('18) 1.1 → ('19) 1.4 → ('20) 1.6
청년고용지원 (조원): ('18) 0.5 → ('19) 1.3 → ('20) 1.9

붙임 2 **Q & A**

1.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데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?

□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로 **실업급여 수급자**가 크게 **증가**하고,

* 실업급여 지원(만명, %): ('18) 139(9.3) → ('19) 153(9.7) → ('20) 178(16.9)
실업급여 지급액(조원, %): ('18) 6.7(27.6) → ('19) 8.4(25.4) → ('20) 12.2(45.3)
* ( )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

○ 고용위기 업종 등 **고용유지 지원**과 **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**에 총력을 다한 결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

* '21년말 적립금이 '20년 대비 크게 감소(△2조원)하여 4.6조원 수준 예상

□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, **회복속도가 더디고 단기적**('21~'25)으로는 **적립금이 고갈**될 수 있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**신속하게 보충**할 필요가 있음

* (실업급여 수지, 단위:조원) ('22) △2.0 ('23) △1.4 ('24) △0.7 ('25) △0.06, **'23년 적립금 고갈**

□ 정부는 **일반회계 전입금 확대**, 사업 구조조정 등 **지출효율화 방안**을 우선 마련했고,

○ 이를 통해 **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**하여 노사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함(고안·직능 동결, 실업급여 0.2%p 인상)

□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,

○ 올해 3월부터 **취업자수가 증가세로 전환***하고, **민간소비가 회복**될 것으로 전망**되는 등 **국내경제가 회복중**인 점을 고려했고,

	'20.3월	2/4	3/4	4/4	'21.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
* 취업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명)	△19.5	△40.7	△31.4	△44.1	△98.2	△47.3	31.4	65.2	61.9	58.2	54.2

* (KDI 국내경제 전망, 5월) '21년 수출 개선(3.8% 성장), '22년 민간소비 회복(3.0% 성장) 전망

○ 코로나19 상황의 개선 정도, **경제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고, 노사 의견**을 충분히 **수렴**하여 **시행시기는 '22.7.1**로 정함

2. 일반회계 전입금이 1.3조원에 달함. 결국 고용보험 재정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아닌가?

□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**노사정 협약을 체결**('20.7.28) 하면서

○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**일반회계 지원도 적극 검토**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

<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('20.7.28.) 3-4.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확보>

가.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재정안전성 강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.

나. 정부는 저출산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모성보호사업의 일반회계 지원 등 재정확충방안을 적극 검토한다.

다. 정부는 유사·중복 및 집행부진 사업 폐지 등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고,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,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.

□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더딘 **현 상황**에서 노·사의 보험료 부담 여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**보험료 인상은 최소화**하고,

○ **코로나19 위기극복**을 위해 **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**할 필요가 있음

□ **과거**에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**요율을 인상**한 바 있으나,

* ▲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'99년 0.4%p 인상,
▲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'11년 0.2%p, '13년 0.2%p 인상

○ **금번 보험료율 인상**은 과거와 달리 **정부지원도 대폭 확대**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**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**라고 볼 수 있음

3. 요율인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의 효과는?

□ **보험료율 인상(0.2%p) 및 정부지원이 확대**된다면, **'23년부터 실업급여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**될 것*으로 보이며,

* 보험료율 미인상시 재정수지('23) △1.3조원 vs 인상시 재정수지 +0.2조원
적 립 금('30) +7.6조원 vs 적 립 금 +23.8조원

○ 각 계정 적립배율이 1.0을 넘는 시점('27년 예상)부터 **단계적 예수금 상환도 가능**할 것으로 보임

- **실업급여 계정**은 **'23년 흑자전환 이후** 지속적으로 **적립금 및 적립배율 증가** 예상

* '30년 적립배율 1.4 도달(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시 적립배율은 1.0 예상)

- **고안·직능 계정**은 **'23년부터 재정수지 개선 예상**

* '30년 적립배율 1.3 도달(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시 적립배율은 0.8 예상)

○ 아울러, **사업구조조정 등 지출효율화, 실업인정·재취업지원 등 실업급여 관리 내실화, 부정수급 예방·적발 강화를 지속** 추진할 경우

- 고용보험기금의 **누수를 막고 추가적인 기금 재정상황 개선 가능**

---- **【 참 고 】** ----

□ **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시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**(단위: 억원)

○ 보험료율 0.2%p 인상시(매년 1.5~1.6조원의 재정수지 개선)

* 재정수지: ('22)△2,416 → ('23)1,907 → ('24)9,818 → ('25)18,191 → ~ → ('30)46,747
적 립 금: ('22)29,393 → ('23)31,300 → ('24)41,118 → ('25)59,308 → ~ → ('30)237,625

○ 보험료율 미인상시

* 재정수지: ('22)△9,605 → ('23)△13,480 → ('24)△6,617 → ('25)634 → ~ → ('30)23,550
적 립 금: ('22)22,204 → ('23)8,724 → ('24)2,107 → ('25)2,740 → ~ → ('30)76,472

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돕고

*실업급여 지원인원

'18년	'19년	'20년
139만명	153만명	**178만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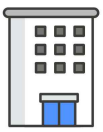
	Before	After
실업급여 ↑ 지급수준은 높이고	평균임금의 50%	**평균임금의 60%**
실업급여 ⊕ 지원기간은 늘리고	90일~240일	**120일~270일**

('19년10월~)

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

*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인원

'18년	'19년	'20년
3만 3천명	3만 1천명	**77만 3천명**



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
고용조정이 필요하지만
휴업·휴직 등으로
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
휴업·휴직수당 최대 90% 지원

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고용보험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?

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

취약계층 고용
일자리 나누기
장년고용
→ **일자리를 만든 사업주 지원**

'18년	'19년	'20년
16만명	25만명	**28만명**

*고용창출장려금 지원인원

청년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

청년채용특별장려금	청년내일채움공제
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 인건비 지원	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

'18년	'19년	'20년
2,408천명	2,475천명	**2,420천명**

*청년(25~29세) 취업자수 | 경제활동인구조사

고용보험 재정건전화 어떻게 할건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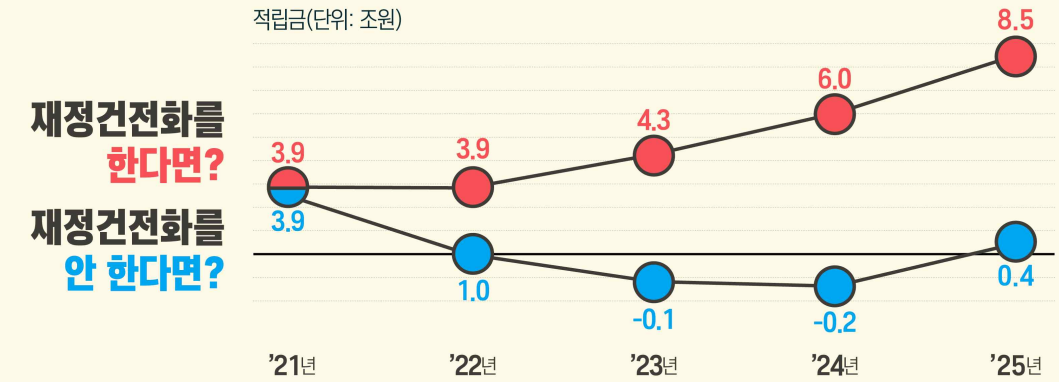
지출은 줄이고 ↓

사업구조 조정	• 한시사업 종료 • 사업규모 조정
구직급여 제도개선	• 반복수급 최소화 • 재취업 지원 강화
부정수급 적발강화	기획조사·일제단속·예금압류 등

수입은 늘리고 ↑

정부 지원	일반회계 전입금 등 정부 재정 지원 확대
실업급여 보험요율	요율 인상 최소화
가입누락자 관리 강화	국세청 자료 연계를 통한 누락자 관리 강화

어떻게 좋아지나요?



앞으로의 계획은?

- 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 지속 추진
-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